

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 기능의 대중화 및 활용 확산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국토교통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-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분석 기능을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추진하며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저변 확대
 -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인구 밀집도와 업종 분포 등 상권 정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창업 의사결정 지원 환경 조성
 - 기존 4종 수준의 2차원 공간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, 밀집도, 근접도 분석 등 19종으로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시설의 입지 분석 지원
 - 주변 인구 특성과 점포 분포 등을 시각화하여 소규모 창업자와 일반 이용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
 - 기존 2D 평면 지도 제작에 국한되었던 ‘나만의 지도’ 기능을 3D 입체 지도로 확장하여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제작과 공유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실생활 활용도를 대폭 확대
 - 3D 공간 측정·설계 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·건축 분야의 3D 파일 포맷 지원을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,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웹에서 구현 가능
 - 연계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자동 갱신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신뢰도 향상
- 브이월드 4단계 서비스는 공간정보의 일상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·민간 협력 기반의 공간정보 생태계 형성 기반 마련
 - 일반 사용자와 중소 사업자를 중심으로 공간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생산과 서비스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
 - 동호회 및 일반 이용자가 3D 지도를 활용하여 경로 분석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며 공간정보 활용 방식 다변화
 - 소규모 건축·설계 분야에서 별도 고가 소프트웨어 없이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공공 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민간 서비스 개발 및 확장 기반 강화
 - 데이터 자동 갱신과 품질 검증 기능을 통해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 -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위치 기반 서비스 및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 가능성 확대

※ 출처 : 경향신문(2026.01.18), 일반 국민도 공공 공간정보로 상권 분석한다...‘브이월드’ 4단계 고도화